

2021년 도 제 18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1년 9월 9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현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박 종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 <의안 제29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1) 관련부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계속 지원하기 위해 한도 유보분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존의 16.1조원으로 유지하되, 2022년 12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 같은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연장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이 2021년 9월 30일로 도래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한 일부 한시적 조

치들은 예정대로 종료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 기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8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2021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3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의 운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도입 취지 및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성과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금리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방역대책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였음. 아울러 한도 확대 조치는 대규모 폐업을 막음으로써 향후 경제가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폐업과 재창업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이고 경제가 회복국면일 때 고용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회는 앞으로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고 방역대책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점차 언와인딩(unwinding)되어야 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출구전략(exit policy)이 어떻게 소프트랜딩(soft landing)될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심의결과

#### 의결문 작성·가결

##### <의결사항>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현재의 43조원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2.5조원을 유지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1.0조원 감액한 1.5조원으로 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의 5.5조원에서 3.0조원 감액한 2.5조원으로 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는 1.0조원 증액한 3.5조원으로 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의 16.1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19.1조원으로 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 <의안 제30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는 지난 6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제조업·서비스업 등 생산측면에서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기술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향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 기초적 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상황과 관련한 이슈들을 포함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참고 박스(box)에 ‘최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및 파급영향’과 ‘기조적 물가흐름 및 전망’에 대한 내

용을 추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점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또한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통화정책 수행 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서술을 보완하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 최근의 경기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7월 이후의 최신 경기지표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참고 박스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에서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성장의 꼬리위험을 상당폭 확대시켰다는 내용에 대한 세부 근거를 국내 및 주요국 사례 등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9월 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최근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은 통화정책 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다 상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8월중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는 반도체 관련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작용한 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한 서술은 가급적 수치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도 유의하여 물가상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참고 박스 ‘최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의 현황 및 평가’는 최근 국내 제조업, 수출물량, 건설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관련 내용도 일부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운영’ 중 ‘기준금리’ 관련 서술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 표결결과를 각주 등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참고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은 모형 구성, 추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계량모형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제목과 본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동 참고 박스에서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되고 금융불균형 누증이 심화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평균치보다는 작게,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 최근과 같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에 부담을 줄 가능성, 그리고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는 등 관련 서술을 다소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중 '주요 고려사항' 관련 서술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된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참고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에서 잭슨홀 심포지엄(Jackson Hole symposium)에서의 Powell 의장 발언을 포함하여 관련 동향을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국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균등한 회복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에도 계속 유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생략)